

POLITICS 광주시, 국회의원 전원에 '5·18 45주년' 초대장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대중교통 무료·주먹밥·빵 나눔 등 손님맞이 한창 강기정 “소년의 길 걸으며 오월정신 전국적 확산”

광주시가 우원식 의장 등 국회의원 전원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했다. 광주시는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이 30일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강 시장은 “오월광주, 민주주의의 대추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라며 제45주년 5·18기념행사에 초청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광주시는 지하철·시내버스 무료(17~18일), 오월 텐트촌 운영(17일 밤), ‘소년의 길’ 투어, 오월주간에 열리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5·18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

5·18기념식 등 오월주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소개했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더욱 뜻깊게 준비하고 있다. ‘80년 오월광주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전국,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환대에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손님맞이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 5·18을 알린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년의 길’ 투어, 오월 나눔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나눔과 빵 나눔 등도 준비한다. 특히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밤에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오월 텐트촌’을 꾸려 80년 5월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

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5개 정당에 ‘광주시 대선공약 제안’ 등 광주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등 광주시 대표산업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예산 확보,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미래 먹거리 선점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윤여준·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 선대위 출범...李 “내란극복·경제회복·국민통합 약속”

“이념·진영 얽매이지 않고 통합...국민 모두 승리 만들 것” 선대위원장들 “오만하지 말고 겸손” “쓴소리 하겠다” 각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내란극복·경제회복·국민통합'을 선대위의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선대위는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3대 과제 중 국민통합과 관련해 “다시 일어나 진전하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 내란에 반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당 간 대결이 아닌 미래와 과거, 제도약과 퇴행의 대결이다. 더는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어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가 없다”며 “이재명부터 진정한 국민통합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손잡을 때 분노와 상처는 아물 것”이라며 “저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통합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다.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 제 개인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며 원점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의 콘셉트는 경청”이라며 의원들이나 지역위원들이 여의도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 오만한 언행이나 안이한 언행을 피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총괄 선대위원장들도 각오를 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 압도적 정권교체를 내란을 완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제 능력도 경험도 부족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광장처럼 광스럽고 어깨가 무겁다. 진짜 국민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가겠다”고 발언했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팬데믹을 극복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3일 노동자가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이 싸움을 압도적 승리로 만들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진영 출신 인사로 합류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선판에 뛰어 들었다”며 “헌법이 국민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런 큰 틀 아래 이 후보에게 조연도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미안하지만, 쓴소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경선 도의원 “2027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해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서 최우선 과제 선정 촉구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사진)은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진료를 위해 먼 타지를 떠돌며, 어르신들의 건강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료기관을 찾다 길 위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역 의료 현실을 전했다. 이어 “매년 70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낯선 타지 병원을 전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절망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2027학년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대의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의 요구가 아닌 200만 전남 도민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방식 변경에 대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비극적인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남 국립의대는 2027년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며 “정권의 변화나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역사적 목표 앞에서 전혀 없는 협력과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새로운 전남을 여는 첫걸음은 바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문수 도의원 “美 수산물 제재 확산 선제 대응”

실태조사·국제 기준 외국인 고용 체계 마련 등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사진)은 미국의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해 향후 전남 수산업 전반에 미국발 수입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전남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농어촌 외국인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라며, “전남의 핵심 수출 품목인 김, 전복 등 수산물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전반의 '신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재가 확산될 경우 어민과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전수조사, ILO 기준 부합 대응 관리 체계 마련, '대미 농수축산물 수출 제재 대응 TF' 신설 등 세 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농수축산업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전남도가 세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21억 들여 수산종자 방류 14개 시군 연안 1474만 마리

전남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21억 원을 들여 관내 14개 시군 연안에 수산종자 1474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방류 품종은 감성돔, 대하, 꽃게, 전복, 해삼 등 지역 연안의 특성에 알맞은 15개 고부가가치 품종이 선정됐다. 방류는 품종별 생태주기에 맞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1988년부터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430억 원을 들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높은 건강향 우량종자 5억 6000만 마리를 방류해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선 방류의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 연안별·어종별 방류 효과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韓 대행 사퇴 유력...내일 출마 선언할 듯

1일 오전까지 일정 소화...국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 본격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다음 달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식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

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전남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발선했다. 한 대행의 공식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남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양자간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한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물 인세 발주 마감일인 다음 달 7일 전으로 보고 있다. 이날을 놓칠 경우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후보물에 단일 후보임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7일을 넘길 경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이 다음 시한이 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단일화에 성공해야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시기가 11일도 넘기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빛고을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18명 선발

'2억7500만원 규모' 중·고·대학생 22일까지 추천...내달 선정

빛고을장학재단(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상반기 장학생 318명을 선발. 장학금 2억75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 규모는 학업장려 장학생 178명, 생계곤란 장학생 107명, 직업계고 장학생 33명이다. 선발대상은 장학금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 대학생이다. 학업장려 장학생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이수 과목의 과반수 이상에서 원점수 D이상(고등학교생의 경우 60점이상)을 받은 학생 중 생활 정도가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생계곤란 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계고 장학생은 기탁자가 지정된 분야의 직업계고 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 중학생(93명)은 30만원에서 50만원, 고등학생(184명)은 50만원에서 80만원, 대학생(41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각 대상별 추천기간 등을 통해 장학생을 모집하며, 6월 중 최종 선정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빛고을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6204명에게 장학금 47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